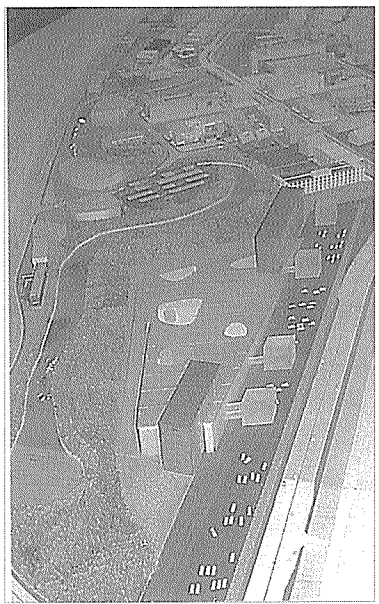


### 파주출판도시 제1단계 설계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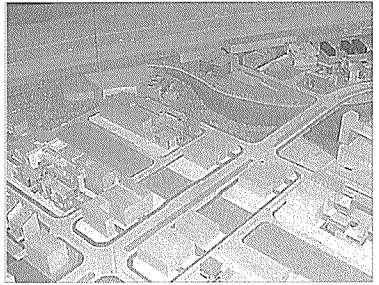
공동성의 실현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원의 1백55만5천9㎡ 대지에 들어설 문화 산업단지인 출판도시건설을 위한 제1 단계 설계전시회가 지난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1년 1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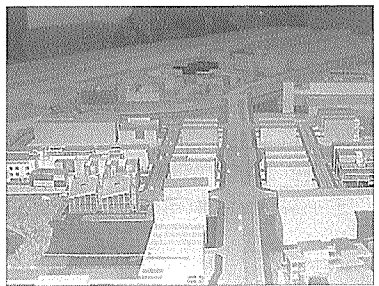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전체 모형

파주출판조합 인포룸에서 열렸다. 이번에 참여한 건축가는 김광수/팀반건축, 김병윤+안희상/시명건축, 김병현/장건축, 김영섭/건축문화, 김영준/이로재, 김원/광장, 김인철/아рки움, 김현/예다건축, 김종규/m.a.r.u.건축, 민현식/기오현, 세지마 카즈요+니시자와 류에, 스리알렌, 승효상/이로재, 이일훈/후리, 이종호/스튜디오메타, 이항배/단우모람건축, 이호추/명승건축, 정기용/기용건축, 정성원/세종대,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최욱/스튜디오 최욱, 플로리안 베이겔 + 필립 크리스투 등이다. 이번 열린 제1단계 설계전시회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2차 지구가 추가된 전시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며, 제2단계인 제11섹터부터 제21섹터에 참여하는 섹터건축가는 김영섭, 방철린, 김승희, 권문성, 김 현, 최두남, 이성관, 민현식, 우경국, 최문규, 서혜림씨 등이다.



시범지구 상세



단지를 가로지르는 주도로에서 본 모습



개별 섹터건축가의 발표

### 한국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해 12월 9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문화연대공간환경위원회(위원장 정기용/기용건축 대표)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대학로의 흥사단 강당에서 '난개발, 해법은 없는가; 한국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산미군기지의 시민 생태공원화, 기무사이전 등을 주장하며, 우리 도시·건축환경에 있어서 공간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위 위원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도시·건축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건축공간의 생산방식에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건축가와 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 제도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조명래(단국대 도시, 지역계획학과 교수), 이상현(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정기용, 박철수(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수석연구원)씨가 참여했다. 이 중 '한국 도시·건축의 공공성 비판과 공공 부문에서의 건축가·도시계획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상현교수는 민간 부동산 자본에 의한 자유방임적 도시개발은 과밀과 환경문제, 도시 일관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선진국들은 19세기부터 자유방임적 도시개발을 규제·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왔고, 공공성이 강한 주택 및 신도시 개발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사업과 유착되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를 경제적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건축가, 도시계획가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부문 건축가, 도시계획가 및 설계 전문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연대공간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제도개혁을 위한 건축가, 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들의 서명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토론회의 성과를 다듬어 올 상반기에 보다 확대되고 조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건축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2001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접수

대한건축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건축 디지털콘텐츠공모전 2001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건축 정보화 분야의 개척, 건축정보 인프라 구축의 조기실현, 건축분야의 정보화 저변확대를 주목적으로 한다. 문의: 공모전사이트 [www.digitalarchitecture.or.kr](http://www.digitalarchitecture.or.kr)

-공모분야: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  
-참가신청접수: 2001. 3. 10일까지  
-심사기준: 독창성, 디자인 및 표현력, 응용기술력, 실무적 공헌도, 완성도

## 제5회 건축사진강좌 개최

2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청암 건축사진연구소(대표:임정의)에서는 제5회 건축사진강좌를 2001년 2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사진 강좌를 개최한다. 12주간으로 진행될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고건축촬영, 현대건축물촬영, 현상,인화작업까지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임정의선생이 직접 강의하며 함께 실습 지도한다.

-기간 : 2월 13일부터 4월 27일(12주)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8시30분

-장소 : 청암 스튜디오-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9-7 (청화빌딩303호)

<뱅뱅사거리 논노빌딩옆 서측건물>

-참가인원 : 12명

-참가비 : 30만원 (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참가문의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 전화 (02) 598-6100

▷강의 내용

1주 - 건축을 보는 눈 (슬라이드 강의)

2주 - 필요한 기자재 선택 (카메라, 렌즈, 필름의 선택)

3주 - 빛과 공간의 조화 (자연광과 인공광의 비교)

4주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타입,조리개,심도의 이용방법)

5주 - 현대건축물 촬영 실기-도시 (토요일오후 3시-오후7시)

6주 - 현대건축물의 촬영방법 (현대건축물 슬라이드)

7주 - 모형촬영의 표현과 테크닉 I (단지모형과 단일모형촬영실

기)

8주 - 모형촬영의 테크닉 II (모형재료에따른 촬영실습)

9주 - 고건축답사 사진기행 (토요일출발-일요일까지/1박2일)

10주 - 흑백현상 및 테크닉 (암실작업실습)

11주 - 인화방법 및 테크닉 (암실작업실습)

12주 - 작품제작 및 총평

## 미국임산물협회, 미국 목재 산업 참관단 모집 및 2001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2001 주택빌더즈 박람회 참관 등

미국임산물협회 ( AF & PA ) 한국사무소는 2001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2001 주택 빌더즈 박람회 및 목조 주택 관련 산업체 참관단을 후원하고, 참관단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조지아 주, 아틀란타 시에서 2001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 57회 Builders Show를 참관에 이어 목재 산업 및 다양한 목조 주택의 건축 및 개발 현장을 관계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시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목조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미주택박람회 (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는 미국주택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100여 개의 분야에 관련된 각종 건축 자재 및 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하여 1,000여 개 이상의 업체

가 참가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택 및 건설 관련 박람회이다. 박람회 참가 인원은 30여 개국의 국제 방문객을 포함한 약 70,000 여명에 이른다. 동 참관단 모집에 관한 주관은 인터컨티넨탈 여행사가 진행하며, 전시회 참가 등록비 및 현지 4일간의 방문 일정 및 이에 따른 교통비 일체를 미국임산물협회에서 지원하게 된다. 1인당 예상 참가비용은 1, 898,000원이다.

한편, 미국임산물협회는 오는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종합주택박람회인 2001 경향하우징페어에 전시관을 개설하고, 미국목재 및 목구조 건축과 목조 인테리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미국임산물협회 김보영 부장 (722-3685/6), 인터컨티넨탈 여행사 이복영 이사(717-6687)

## 연세건축 2001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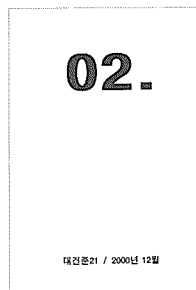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동문들이 학과 설립 40년을 조망하는 '작은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Suku Gallery에서 단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연세대 건축과 총동창회(회장 이종명)가 주최하고, 졸업생 50여 명이 참가하여 저간의 건축작품 및 건축활동 사례를 패널로 작업하여 전시장에 걸게 된다. 25cm 각 두 장의 약식 패널에 표현하는 이들의 작품은 퍼블리케이션을 위한 북퍼포먼스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전시는 단 3일의 외부 공개가 끝나면 연이어 1개월여 동문들간의 이메일링 교환을 통한 상호 작품정보가 지속

된다. 그 결과물은 오는 4월 3일을 기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행사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강철구(동우건축그룹 회장)씨는 이번 전시와 책작업을 통해서 연세대 건축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감없이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Suku Gallery 큐레이터 정유경 (02-512-8990), 연세대 건축과 총동창회 사무국: 김문희 총무(02-544-5879), 홍보대행: (주)이석미디어/월간 건축인 poar (02-519-6520)

## 대·건·준 02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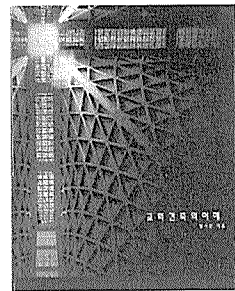


대구의 젊은 건축가들이 뜻을 모아 「21세기의 대구건축을 준비하는 젊은 건축인의 모임」(약칭 대·건·준 21)을 지난 1996년 최초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월 1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건축, 대구건축에서의 문제 제기, 이해, 그리고 해결방안의 모색 등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 결과를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건·준 02」를 발간하였다.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40대 전후의 대·건·준 회원들은 아름다운 도시와 발전된 건축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의: 권종욱 053-810-2438

## 신간안내

교회건축의 이해  
현대미술관 연구 제11집

### ▷교회건축의 이해



“오늘날 한국 교회건축의 모습들이 세속의 잡다한 건축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데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충족시키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생각하였으나, '건축'으로서의 교회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함이며, 또한 교회건축이 교회의 사역에 미치는 대내외적인 영향을 간과한 때문이다.” 한국교회건축에 대한 진단이다. 저자는 이러한 진단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과 관계자들의 이해와 합의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조목조목 분석하고 해설하고 있다.

제1부 성격의 “교회건축의 이해와 미래의 방향”에서는 교회와 건축을 본질에서부터 다시 논의함으로써 교회건축에서 추구해야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건축의 역사 속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미래교회가 건축가와 함께 지향해야할 교회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2부 “교회건축의 실제”에서는 교회당건축을 시작하는 교회가 교회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하여 건축주로서 알아두어야 할 건축의 기본적인 실무과정과 교회건축과정에서 흔히 부딪

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한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교회와 교회건축 설계를 담당한 건축가들을 위해 교회 기능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공간설계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책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교회건축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실제 설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법을 비롯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고 있어 교회건축에 관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를 비롯하여 일반인도 교회건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역사를 한눈에 일람하고 음미할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시춘 지음/357쪽/2만2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현대미술관연구 제11집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모은 논문집, 「현대미술관연구 제11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제11집에는 특히 '특집: 고 김희대연구관 유고원고'에서는 1999년말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만 41세를 일기

로 타계하여 국내외 미술계의 아쉬움을 자아낸 김희대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의 주요 논문 중 3편을 수록하였다. 또한 기획전시연구에서는 정준모 학예연구실장을 필두로 지난 1년간 국립현대미술관이 수행한 주요 기획전시의 진행 및 구성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와 방향이 각 담당 큐레이터에 의해 제시된다. 그리고 최은주 덕수궁 분관장의 국립기관으로서의 근대미술관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와 강승완 학예연구관의 현대미술관과 디스플레이 등의 논문을 통해 예술행정의 측면에서 현대미술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등이 소개되고 있다.

284쪽/국립현대미술관 발행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모집**

정부 기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 향상훈련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주)한국 오토데스크 공인교육원에서는 오랜 경험과 자료들을 기반으로 자산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효과적인 실무교육의 뒷받침이 되며,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도록 컴퓨터 설계과정과 모델링 과정을 개설하였다.

디자인 분야(설계, 인테리어, 3D모델링 분야 등)에 재직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차원 높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

**1.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

**2. 노동부 지원 규모**

※정부지원 직장인 능력개발 과정( 60 ~ 80 %지원)

※교육비 산정 기준 : 과정별 교육 시간 및 각 사업장 고용보험 규모에 따라 산정

**3. 교육비 산정**

※컴퓨터 설계(CAD)과정 교육비:1인당 94,320원(교재비 포함) 지원금액-우선지원대상:75,450원, 대규모:66,020원

※모델링 과정 교육비:1인당 99,320원(교재비 포함)

지원금액-우선지원대상:79,450원, 대규모:69,520원

※과정별 교육 시간 및 각 사업장 고용보험 규모에 따라 지원

**4. 교육 과목**

※컴퓨터 설계(CAD)

-AutoCAD 2000을 기반으로 하여 2000i의 업그레이드 내용교육

-AutoCAD 2000의 2차원 명령어 습득 -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카드 Skill 향상을 위한 교육

-건축, 기계, 디자인 설계부분의 도면작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모 델 링

-AutoCAD 2000을 기반으로 하여 2000i의 업그레이드 내용교육

-AutoCAD 2000의 3차원 명령어 습득 -AutoCAD 2000을 활용한 Surface 모델링 교육

-AutoCAD 2000을 활용한 Solid 모델링 교육

건축, 기계, 디자인 설계부분의 3차원 모

델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5. 교육 기간**

- 2001년 1월 8일(월)~12일(금) 'CAD 설계과정'

- 2001년 1월 15일(월)~19일(금) '모델링 과정'

- 2001년 1월 29일(월)~2월 2일(금) 'CAD 설계과정'

- 2001년 2월 5일(월)~2월 9일(금) '모델링 과정'

**6. 문의**

-교육문의 : 02-555-0163 담당:주문선 대리

-인터넷 사이트:

http://www.atck.co.kr

-E-mail:webmaster@atck.co.kr